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2부 13강 불이(不二)의 법(法), 그 입구(門)

아부의 시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번 강에 일러 드린 대로, “보디스바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쫓 달라고 징징대지 마라. 진리조차도 그렇다”입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2. [如如, 여(如)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다.]

3. [是是, 시(是)여. 바다는 파도를 떠나 있지 않으니, 파도가 곧 바다이다. 먼지가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거울과 바다는 응당 한점 흠 없이 천지를 비출 것이니, 보라, 보라.]

여기서 재용하고 있는 상징과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2. ‘고요’는 ‘시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밖을 향해 분주하게,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시골백적 나대지 말라’는 뜻이고, ‘길게 걸려 있다’는, 하늘 저편 허공에 들어설

아파트 평수를 논하는 것이 우습듯, ‘구분과 차별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제 1부에서, 구분과 차별이 인간의 관심과 욕망의 투사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외롭다’는 그 관심과 욕망으로부터의 탈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홀로’란, 모든 인간적인 흔적이 지워진 곳, 자아(我)의 부당한 개입과 존중이 그친 곳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특히 선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외로운 달(孤月, 一月孤)’은 나로 하여 토막되지 않은, 저 스스로 나와 더불어 완전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3은 그 여시(如是) 세계의 실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곧 파도이고, 파도가 곧 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대승기신론>이, 그리고 원효의 소가 본적 논구하고 있듯이, 파도는 이데면 인간간의 심리정신적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각자의 심층적 무의식, 자연적 신체로부터 발원한 것이고, 그 바탕은 우주의 총체적 에너지 근원에 뿌리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추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적 에너지의 파도가 보다 근원적 심층의 자연과 분리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짙어 들 것은 무의식의 심층에 관한 것인데... 유식이 표면적 육식(六識) 너머에 자아의식인 칠식(七識), 그 너머에 무의식에 해당하는 팔식(八識), 그리고 때로는 그 너머에 구식(九識)까지 있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아의식의 뿌리에 잠든사기 가득한 무의식이 있다

을 때, 즉 에고가 숨죽인 무아(無我)에서, 세계는 제 모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我)는 어떤 모습이며, 무엇을 다시 들을(聞) 것인가, 여기 한 두 마디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我, 淨裸裸赤(淨)西(淨)沒(淨)可(淨)把(淨)我(淨). 認(認)得(認)分明(認)成(認)兩(認)箇(認). 不(不)動(動)纖(纖)毫(毫)本(本)然(然). 如(如)音(音)自(自)有(有)松(松)風(風)和(和).]

5. [聞(聞). 切(切)忌(忌)隨(隨)他(他)去(去). 猿(猿)啼(啼)嶺(嶺)上(上). 鶴(鶴)唳(唳)林(林)間(間). 斷(斷)雲(雲)風(風)捲(捲). 水(水)激(激)長(長)湍(湍). 最(最)好(好)晚(晚)秋(秋)霜(霜)雪(雪)夜(夜).]

에서 웃는다. 조각구름 바람이 말려가고, 물은 긴 여울로 치고 흐른다. 좋구나! 낮은 가을 서리 내리는 깊은 밤에, 새 기러기 한 마리 차가운 하늘을 울고 간다.”

4. 아(我)여 여시(如是) 그 세계는 밖의 유혹이 멈추고, 안의 혼란이 그칠 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아(我)는 그것을 경험하는 주제입니다. 주체라는 말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수한 경험의 지속으로 드러날 뿐, 자신을 대상화할 아무런 표지도 갖

할 전부입니다. 보리사바하. 이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신성한 현재’를 온 마음으로 충분히 살기에 주력하십시오. 보리사바하, 그 불도(佛道)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치 움직이지 않고 본시 본연(本然)에 합해 있다(不動纖毫本然).” 그러니, 부디, 세상에 대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믿으십시오. 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의 소식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온갖 먼지바람에 텅텅한 도심의 공기를 떠나, “산림의 솔바람 소리를 달게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知音自有松風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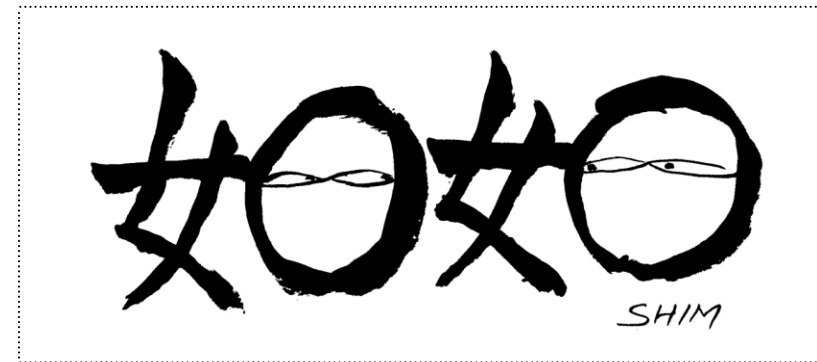
5. 문(聞): 그럼, 이제 무엇을 ‘더’ 들을 것입니까. 이 모든 소식은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밖의 소음과 내부의 허덕임을 그만 멈출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소식은 성찰과 명상으로 얻는 자기 지혜일뿐입니다. 책이나 설교는 그런 점에서 이 철저한 내면성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위대한 선지식 붓다의 목소리로 우리를 잠깐 이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철 스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돈오돈수(頓悟頓修)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뛰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 하나로 이미 완전해졌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말입니다.

그 정분의 일침을 지금 아부는 울고 있습니다. “제발 남 좇아 가지 마라!(切忌隨他去)” 마군에도 좇아가지 말고, 부처도 좇아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허를 쫓아 진리를 알겠다고 <금강경>을 펼쳤는데... 지금 아부는 생똥맞게, 이제 그만 되었으니, 책을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괜찮다(如), 내가 어딜 가겠느냐(是)”



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벌거벗고 깨끗한 몸(淨裸裸赤西西)’입니다. 이 전체의 경험을 박제화하거나, 거기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또 그 가치를 의심하거나 그 잔을 외면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요 하면 들로 갈라지니 조심해야 한다(認得分明成兩箇).”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생생한 ‘지금 이것(如是)’의 경험이 이루어야

주장사파라...

백장선사의 ‘불씨’



조태호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 당대 스님. 20세에 서산혜조에게 출가, 마조도일에게 참구하여 인기를 얻음. 선원정구의 개창자로서 선의 토착화에 크게 기여.

네티즌 교리문답

‘불가피(不可避)’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어.” 또는 “불가피한 일이라면 차라리 받아들여”라면서 ‘불가피’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에게 이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궁금이)

답 1 :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원치 않은 일이라도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다가와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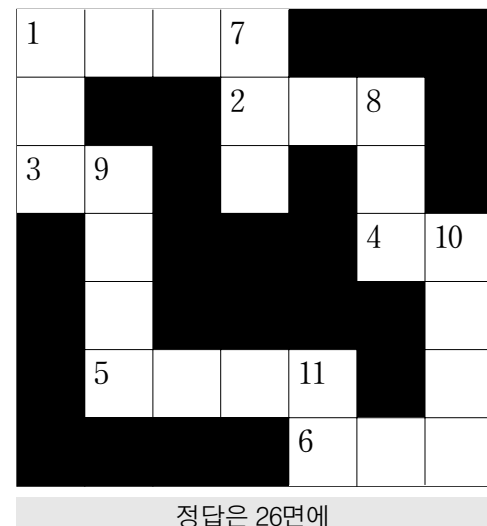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면서 부닥치는 불가피한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의해 태어나는 생명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면 좋은 생을 받아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나쁜 생을 받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일들을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가피한 생명의 과보를 면하기 위해 현재에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경책을 던져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국어사전)

답 2 : 사실 늙는 것 또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월은 고정불변함 없이 항상 변화 감으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말입니다. 천하의 재왕도 하찮은 거지도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을 느낍니다. 죽음을 불가피합니다. 천수를 누리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려 다녔던 진시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을지라도 누구나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죽음의 운회바퀴를 완전히 벗어나 해탈을 얻는 방법을 설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가피에 대한 개념을 ‘피할 수 없는 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이를 승화시켜 인과응보를 일깨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가피불자)

답 3 : 불가피한 일들에 대해 “운명이라니”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겪는 일 이기에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를 불가피하게 초월하는 과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운명개척보살)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악곡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되풀이하여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표 2. 준공을 알리고 축하하는 의식 3. 독립기념관이 있으며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 4.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게 전해져 유교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5. 잘못되어 가는 세태가 슬프고 분한 6.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 퍼지 못하게 된 손.

정답은 26면에

1. 육계육천 중 두 번째 하늘 7. 교양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8. 음식을 먹은 뒤 졸음이 오는 증세 9. 뜻은 크고 안목은 높으나 재주가 없어서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10. 자손의 여러 대(代) 11. 고치어 다시 만들.